

# 구입한 책 가져오면 책값 드립니다

남원시, 책값 반환 사업 5년째 영수증 제출...월 2권·최대 4만원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 등 제외 서점 경제 활성화·독서문화 선순환



남원의 한 시민이 공공도서관을 찾아 '책값 돌려주기 사업'으로 구입한 책을 직원에게 건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뜨거운 호응과 관심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던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올해로 5년째 시행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남원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1개월 내에 공공도서관(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구입한 책과 도서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권 최대 4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단 출판 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 만화책,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전문서적), 비도서, 오·훼손 도서 등은 대상 제한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책읽기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고안됐으며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 확산과 온라인 대형서점에 밀려 침체된 지역서점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도서는 관내 작은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배부해 공공시설 보유도서의 다양성과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독서문화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9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해 5년째를 맞이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난해 남원시민 1090명이 참여해 1900권이 도서관으로 반납됐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3000만원 전액이 모두 소진됐다.

또 지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81.8%로 나타나 시

민의 독서 문화생활 증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추진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해마다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독서 참여방식을 유도해 일상 속 책 읽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전국 동학혁명 단체 17곳에 사업비 지원

올해 130주년...기념재단, 9000만원 예산 편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올해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 총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애국 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총 17개 동학 관련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도서 및 영상물 제작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3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당시 활동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배려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지원단체를 선정했다.

선정심의 결과 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충남 태안),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경기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주) 등 17개 단체가 선정됐다. 재단은 단체별로 4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거동 불편 해결사 '주민도움센터'

지난해 월 평균 250건 총 3015건 서비스 ...시민 복지체감 높여

정읍시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가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시는 지난해 총 3015건의 운영 실적으로 월 평균 약 250건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상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로 시작해 현재 3명의 상근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생활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시장보기, 민원업무 신청 전달, 물품 전달, 병원·약국 동행 등을 돕고, 위기가정 발굴 등 업무도 수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도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현재 정읍을 포함해 도내 12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운



'주민도움센터'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시 제공>

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민도움센터에 전화·접수를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100억 들여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 일원 2026년까지 5개 마을과 협력 경관·먹거리·축제 등 개발



풍부한 자연생태 경관, 인문학 자원, 먹거리 등을 활용한 체험, 축제,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 문화된 최고 수준의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를 활용한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운영에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마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사무국 개소식을 시작으로 침체한 복분자 유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마을이 활성화되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최근 부안면 복분자유원지 웰빙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스타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개별 경영체 대표, 5개 마을(용계·용산·진마·안현·신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앞서 고창군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100억원(도비 40억원, 군비 40억원, 민간 2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4년간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 내에 농촌관광 스타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사업은 전문 CEO와 건축, 토목, 디자인, 투자유치에 다재다능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스타마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변 5개 마을과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16일까지 산정

4월 30일 결정·공시

남원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표준지 4052필지를 제외한 25만9632필지다.

시는 가격을 산정과 함께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남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평균 표준지공시가격이 동일해 이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 역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이용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평생어부바

##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대표번호 1644-7990